

‘만년 꿀찌’ 히로시마의 기적같은 여정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우승〉

각 포지션 18세부터 연령별 선수 육성 야구장 건립사업 성공으로 흑자 전환 지방 야구단 우승이 지역경제에도 활력

11일 아침, 일본 신문은 온통 붉은 색이었다. 빨강은 10일 밤 도쿄돔에서 요미우리를 꺾고, 일본프로야구 센트럴리그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해 히로시마 도요카프의 상징색이다. 스포츠신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유력 종합지들까지 북한 핵실험 소식을 밀어내고 히로시마 우승을 1면 톱기사로 대서특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32면 중 8면에 걸쳐 히로시마 관련 뉴스를 실었다. 심지어 사설(社説)에까지 히로시마 우승을 다뤘다. 왜 열도는 이토록 히로시마의 우승에 열광하는 것일까?

●울림을 주는 가난한 만년꿀찌의 반격

히로시마는 일본프로야구 12개팀 중 가장 오랫동안 우승을 못한 팀이다. 1991년 이후 우승까지 무려 25년이 걸렸다. 1975, 1979, 1980, 1984년 우승을 차지한 붉은 군단의 쇠락은 프리에이전트(FA)와 신인드래프트 역지명



만년 하위팀의 반란이다. 히로시마가 25년 만에 센트럴리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하자 일본 열도 전체가 들끓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1면 톱으로 히로시마의 우승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오사카(일본) | 김영준 기자

(드래프트를 거부하고 사회인야구에 입단한 선수가 추후 FA처럼 프로팀을 택할 수 있는 제도) 제도가 1993년 도입되면서부터다. 유일하게 모기업이 없는 시민구단인 히로시마가 역지명 선수의 선택을 받은 케이스는 단 3번뿐

이었다. 이 중 1명이 히로시마의 심장 구로다 히로키(41)였다. FA는 외부에서 단 1명도 잡아오지 못했고, 전원이 떠났다. 1998년부터 15년 연속 리그 3등 안에도 들지 못한 삼류구단이었다. 2004년 일본야구 구단 재편 격변기에는 “(긴테쓰, 다이아가 아니라) 히로시마가 사라져야 될 구단”이라는 소리가 지 들었다. 그러나 마쓰다 구단주를 비롯한 히로시마 프런트는 돈이 없다고 좌절하지 않고, 긴 안목으로 바닥부터 팀을 다졌다.

그들이 찾은 길은 신인 드래프트, 육성이었다. 히로시마에는 ‘연령선수 표’라는 것이 있다. 포지션별로 18세부터 나이대가 다른 선수를 갖춰놓는 것이다. 이 표에 근거해 팀에 부족한 포지션의 선수를 일찍부터 선별해 키워나갔다. 이 바탕 위에 2년 전, 뉴욕 양키스를 마다한 에이스 구로다가 돌아왔다. 한 신으로 FA 이적했던 타자 아라이 다카히로(39)도 고향팀을 위해 현역 마지막을 바치기로 했다. 10일 우승 확정 경기 승리투수는 구로다였다. 미·일 통산 202승으로 노모 히데모를 제친 구로다는 승리 직후 아라이와 포옹하며 뜨거운 남자의 눈물을 흘렸다.

●히로시마의 우승이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

히로시마는 1949년 시민들이 돈을 모아 창설된 팀이다. 4년 전, 원자폭탄을 맞았던 히로시마 시민들에게 야구단은 희망이었다. 그러나 독립채산제로 경영하다보니 리그 가입비, 선수 연봉조차 감당 못할 지경이었다. 이후 1967년부터 마쓰다 자동차가 경영을 맡으면서 살림이 개선됐다. 1975년부터 40년 이상 흑자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148억 엔 매출에 7억6000만 엔의 사상 최대 흑자를 봤다. 2009년 완공된 마쓰다스타디움의 힘이다. 히로시마시민들은 총 공사비 90억 엔의 야구장 건립에 보태라고 1억2600만 엔을 모금해줬다. 히로시마시는 야구장 사업을 전부 야구단에 맡겼다. 옛날 구장에서 94만 명이 최고였던 관중이 일약 211만 명으로 증가했다. 구단 재정이 나아지자 선수 사가가 달라졌다. 귀향하는 선수들도 품을 수 있었다. 마쓰다 구단주는 당당히 “야구단은 히로시마 시민들의 공기”라고 말한다. 히로시마의 우승은 대도시에 소외됐던 지방 소도시의 반격이었다. 히로시마시와 시민들이 가꿔온 야구단이 지역경제를 일으키고 있다.

오사카(일본) | 김영준 기자 galzby@donga.com



피츠버그 강정호(오른쪽)가 11일(한국시간) 홈구장 PNC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전에서 3회 2점홈런을 날린 뒤 홈에서 팀 동료 조시 벨의 환영을 받고 있다. 시즌 18호 홈런으로 20홈런 고지제 성큼 다가섰다. 피츠버그(미 펜실베이니아주) | AP뉴시스

강정호 18호 홈런…한국인 빅리거 최다홈런 가자

부상 복귀후 6경기서 4홈런 ‘괴력’ ‘추신수 한 시즌 22홈런’ 경신 기대

강정호(29·피츠버그)가 부상 복귀 후 4번째 홈런을 때려내면서 시즌 20홈런 고지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강정호는 11일(한국시간) 홈구장 PNC파크에서 열린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5번타자 3루수로 선발출전해 시즌 18호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3타점 1득점을 올리며 화끈한 타격감을 자랑했다. 불빛도 1개 골라내 이날 4차레나 홈루에 성공했다. 시즌 타율은 전날 0.255에서 0.263(255타수 67안타)으로 올랐다.

무엇보다 홈런이 반가웠다. 2·0으로 앞선 3회말 2사 2루에서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2점홈런을 날렸다. 상대 선발 투수인 신인 우안 로버트 스티븐슨을 상대로 파울 2개를 치는 등 볼카운트 0B-2S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4구째 몸쪽 커브(시속 130km)를 잡아당겼다. 브레이크가 제대로 걸리지 않은 ‘행잉 커브’를 통타했는데, 다소 빗맞은 듯 큰 포물선을 그리던 타구는 왼쪽 폴 안쪽 외야 관중석으로 살짝 넘어갔다. 비거리 101m.

8일 세인트루이스전 이후 3경기 만에 터진 홈런. 특히 어깨 부상을 털고 6일에 복귀한 뒤 6경기에 출장해 4개의 아치를 몰아쳤다.

피츠버그는 이날까지 140경기를 치러 22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강정호가 홈런 2개를 추가하면 한국인으로서

추신수에 이어 메이저리그 무대에서 시즌 20홈런 고지를 밟는 2번째 인물이 된다. 추신수는 시즌 20홈런을 4차례(2009년 20홈런, 2010년 22홈런, 2013년 21홈런, 2015년 22홈런) 돌파한 바 있다.

강정호는 지난 시즌 말미에 무릎 수술을 한 뒤 재활훈련을 하면서 올 시즌 개막 후 한 달 이상 공백기가 있었다. 또한 어깨 부상까지 겹쳐 8월 말부터 보름 이상 이탈했다. 그러나 경기수와 타석수가 지난해에 비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렬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6경기 421타수에서 15홈런과 58타점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이날까지 83경기 255타수 만에 18홈런과 51타점을 기록했다. 타율은 지난

해(0.287)에 비해 다소 떨어지지만 폭발력은 더 매섭다. 이날까지 5연속경기 멀티 홈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타율도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강정호는 이날 1-0으로 앞선 1회말 1사 1·2루서 1타점 적시타를 때렸고, 5회말 우익수플라이, 9회말 좌전안타를 날린 뒤 대주자 앨런 헨스로 교체됐다. 피츠버그는 7-8로 졌다.

한편 LA 에인절스 최지만은 이날 홈구장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텍사스전에서 8회초 대수비로 1루수로 나섰지만 타석 기회가 돌아오지는 않았다. 빅리그 복귀 후 3연속 교체 출전을 기록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손건영의 콧모닝 MLB



보스턴의 릭 포셀로가 10일(한국시간)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토 원정경기에 선발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포셀로는 이날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투수 중 가장 먼저 20승 고지에 올랐다. 토론토(캐나다) | AP뉴시스

‘20승 선착’ 포셀로, 안방 불패 사나이

보스턴 펜웨이파크 14년 선발 13승무패
생애 첫 사이영상·월드시리즈 우승 도전

메이저리그에서 한 시즌 20승 고지에 오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976년 이후 20승 투수가 한 명도 배출되지 못한 시즌은 무려 9차례. 최근으로 보면 2013년에 20승 투수가 나오지 못했다. 지난 시즌에는 시카고 컵스의 에이스 제이크 아리에타가 22승을 거둬 유일하게 20승을 돌파한 투수가 됐다. 지난 30년간 시즌 20승 고지에 오른 사례는 71차례로, 시즌당 평균 2.37번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스티브 칼튼은 무려 6번이나 20승벽을 돌파했다. 톰 시버, 게일로드 페리, 톰 글래빈이 5번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올 시즌은 어떨까. 아직 페넌트레이스가 3주 이상 남았지만 보스턴 레드삭스의 우완투수 릭 포셀로(27)가 가장 먼저 20승 고지에 올랐다. 포셀로는 10일(한국시간)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에서 치열한 선두 다툼을 펼치고 있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전에서 7이닝 2실점으로 눈부신 투구를 펼쳐 팀의 13-3 대승을 이끌었다. 정규 시즌 마감까지 3~4번 더 선발로 출격할 예정인 포셀로가 현재 18승을 거두고 있는 JA 험(토론토)을 따돌리고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을 차지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이브 돔브로츠키와의 인연

1988년생인 포셀로는 고교 시절 뉴저지주 최고의 투수로 군림했다. 졸업반이던 2007년 63이닝을 던져 103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10승무패, 방어율 1.44를 기록했다. 한 차례 퍼펙트게임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고교 시절 포셀로를 상대로 안타를 2개 이상 친 선수는 단 한 명뿐이었다.

운동은 물론 공부도 잘했던 포셀로는 노스캐롤라이나대학에 진학할 예정이었지만 프로로 방향을 틀었다. 당초 고졸 최고 투수라는 평가를 받아 1라운드 최상위권 지명이 유력했지만 그의 에이전트 스캇 보라스가 과다한 계약 요구 조건을 내세울 것을 우려한 구단들의 회피로 27번째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에 지명됐다. 디트로이트는 사이닝보너스로 350만 달러나 지불했고, 4년 계약에 1년 옵션 두 차례까지 최대 1110만 달러의 조건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포셀로를 고졸 선수 최고 연봉자로 이름을 올리게 만든 사람은 바로 데이브 돔브로츠키 단장이었다.

구단의 전폭적 지지와 함께 스프링캠프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린 포셀로는 만 19세이던 2009년 5선발로 시즌을 출발했다. 14승9패(방어율 3.96)의 뛰어난 성적으로 그해 신인왕 투표 3위에 오른 포셀로는 6년 연속 10승 이상을 달성하는 위업을 달성했다. 특히 2014년에는 메이저리그 데뷔 후 가장 좋은 방어율 3.43에 15승(13패)을 따내며 리그 정상급 투수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는 장기계약을 선택하지 않고 2014년 12월11일 요에니스 세스페데스, 알렉스 윌슨, 게이브 스파이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포셀로를 보스턴 레드삭스로 트레이드시켰다. 한편 2015년 8월4일 디트로이트 단장직에서 물러난 돔브로츠키는 딱 2주 만에 보스턴의 구단 운영 사장으로 옮겨 가 운명적으로 포셀로와 재회하며 인연을 이어갔다.

●15패 투수에서 사이영상 후보로

지난해 4월7일 보스턴은 파셀로와 4년 8250만 달러의 조건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했다. 1년 1250만달러의 조건으로 시즌을 갖 시작한 상황에서 나온 뉴스라 의외라는 반응이 많았다. 게다가 7월까지 포셀로의 성적은 형편없었다. 5승11패에 방어율도 5.81로 치솟았다. 설상가상 삼두박근 부상을 입어 생애 처음 부상자명단(DL)에 오르는 등 우여곡절 끝에 9승15패 방어율 4.92의 초라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절치부심 끝에 새로운 시즌을 맞은 포셀로는 자신의 최대 강점인 정교한 제구력을 앞세워 15승을 따냈던 2년 전 모습을 재현했다. 출발이 좋았다. 4월 한 달 동안 5번 선발로 나서 모두 승리를 따냈다. 방어율도 2.76으로 뛰어났다. 5월 들어 2승 2패, 방어율 4.65로 잠시 흔들렸지만 이후 13승을 더하는 사이 단 1패만을 기록하며 에이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특히 홈구장 펜웨이파크에서는 14번 선발로 나서 13승무패(방어율 3.03)로 맹위를 떨쳐 2007년 조시 베헤트 이후 보스턴 선수로는 처음으로 단일 시즌 20승 고지에 등정했다. 1950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20승을 달성한 11번째 보스턴 투수가 됐다.

포셀로는 최근 9경기 내리 7이닝 3실점 이하로 호투하는 등 29번 선발등판 중 퀄리티스타트(6이닝 3자책점 이하)를 22번이나 달성했다. 여기에 팀타율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는 보스턴 타자들이 포셀로가 등판한 경기에서 더욱 힘을 냈다. 포셀로의 선발 경기에서 10득점 이상을 기록한 것이 6차례나 되는 등 경기당 평균득점이 6.97점으로 리그 1위다. 현재 포셀로는 아메리칸리그에서 다승(20) 1위, 이닝수(193.2) 3위, 탈삼진(161) 10위, 방어율(3.21) 9위, 이닝당 출루허용(1.02) 3위, 승률(87%) 1위, 완투(2) 4위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상위권을 질주하고 있다. 생애 첫 사이영상에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노리는 포셀로의 거침없는 기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

MBC스포츠플러스 메이저리그 해설위원